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학교 출석률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발달의 권리를 갖는다.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년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 아동, 특히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도에 83%였던 개발도상국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2015년에 91%가 되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수도 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인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는 아동의 수는 적다. 그래서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디 더 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모든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1. 여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위생용품

일반 위생용품은 접근성이 낮아 구하기 어려울 뿐 더러 빈곤층이 매달 구입하기엔 비싼 가격이다. 또한 월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천이나 고무, 플라스틱, 나뭇잎을 패드로 쓰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 생리기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잦은 결석은 자퇴율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우간다 기업 아프리패드(Afripads)는 2010년 아프리패드 재단(Afripads Foundation)을 설립하고 빈곤층 여학생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위생용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위생용품 제조 판매기업 자나아프리카(ZanaAfrica) 또한 여성 교사들에게도 키트 지원을 시작하면서 여성 교사의 수를 늘리고 월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고 있다.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을 지역생산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제품에 삽화를 그려 넣어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

#### 2. 조건부 현찰 지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꾸준히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에게 매달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던 여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학교의 입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비율 또한 증가했다. 가정의 소득을 늘려 줌으로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 사회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현찰 지급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전략보다 지속 발전 가능성에 있어 더 효과적이란 평가다.

## To Assure the Rights of the Child – 2 Ways to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According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ren have the right to develop. If you're a child, you have the right to be taught which leads to demonstrating your potential abilit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worked together to assure children's rights and as a result, childre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obtained the right to be educated. The school registration rate has increased from 83% in 2000 to 91% in 2015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at doesn't go to school has decreased in half. However, there still are a lot of children that doesn't finish the regular education curriculum. There are 2 way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the attendance rate and help the children to finish the formal curriculum. We hope more ways would be developed so that one day every child could have the rights that they rightly deserve.

### 1. Hygienic goods that increasing girl's attendance rate

Normal hygienic goods have low accessibility; it is expensive to buy for the poor strata for every month. Also, they haven't knowledge about menstruation and social awareness is low. They use cloth, rubber, plastic for pads. So children don't go to school during menstruation because it is hard to manage. For this purpose, Uganda enterprise 'ZanaAfrica' established Afripads Foundation in 2010 and they start to provide reusable hygienic goods. ZanaAfrica also started to support kit for women teachers. Women teacher's number is increasing and incorrect awareness are change. Disposable and reusable hygienic goods are sold through local production in cheap price. Also, they added illustration to delivery health information.

### 2. Conditional cash pay program.

This program is to encourage school for children and to support monetary reward. The best effect is that the girls who can't go to school because of gender inequality get a chance to go to school. Averagely the entrance rate that enters school increased and the rate that goes to school constantly also increased. By increasing family's income,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s economy rev up. So, conditional cash pay program get an assessment not simply on supporting education free of charge, but on exp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ility.